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속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요구 분석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소 윤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요구분석

이숙재 교수지도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소 윤

인 준 서

김소윤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에 나타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한 만 5세 남아와 여아의 요구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소집단 조형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는 무엇인가?
2. 소집단 조형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학급의 만 5세 유아 54명(남아 29명, 여아 2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진행하고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소그룹 조형활동은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3주 동안 11회를 실시하였으며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무선으로 표집하여 그룹 당 5명씩 11그룹(여아 5그룹, 남아 6그룹)이 참여하였다. 유아들을 관찰한 상호작용 내용과 유아들과의 비형식적인 면담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활동결과물인 설계도와 조형물은 사진촬영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현장기록지와 비디오 자료에 대한 전사본, 유아와의 면담자료, 활동 결과물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유목화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해서 만 5세 남아들은 한 가지 놀이기구를 여러 유아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놀이기구나 일상적인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보다 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형태가 변형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놀이나 TV만화 주인공이 되는 역할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에 자동차 모형이나 세트기 모형과 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축구장과 같이 신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모래놀이터, 관찰학습공간이 구성되기를 요구하였다. 만 5세 남아들은 최근에 일어난 유아납치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에 경비실이나 카메라, 탐지기와 같은 보안 시설물이 설치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시계와 전등, 공중전화, 약국, 음료수자판기 등과 같이 놀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필요로 하거나 놀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편리한 시설들도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기를 요구하였다.

둘째, 만 5세 여아들은 남아들과는 달리 놀이기구가 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기를 요구하였고, 소꿉놀이와 같은 가상놀이를 할 때 필요한 놀이 집을 요구하였다. 여아들은 신체적인 활동 보다는 휴식공간이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같은 조용한 공간이 실외놀이터에 더욱 많이 구성되기를 원하였고 식물 재배나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관찰학습공간도 원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보안 시설물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놀이기구가 자신들의 신체크기에 맞도록 제작되거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료로 제작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실외놀이터의 바닥재는 잔디가 사용되기를 원했다. 여아들이 요구한 편리한 시설에는 음료수자판기, 선풍기, 우체통, 화장실, 사물함 등이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실외놀이터의 중요성	6
2. 실외놀이터의 구성	7
1) 위치 · 면적 · 지면	8
2) 공간조직	9
3) 놀이기구 및 시설물	10
4) 기타시설물	11
3. 실외놀이터와 관련된 선행연구	12
1) 실외놀이터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	12
2) 실외놀이터의 만족도 및 놀이 기구 선호도	13
3) 실외놀이터에 관한 사용자 요구분석	14

Ⅲ. 연구방법	16
1. 연구 대상	16
2. 활동소개 및 자료수집	19
3. 자료 분석	24
Ⅳ. 결과 및 해석	25
1.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	25
1)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단순 놀이기구의 변형	26
2) 장난감 자동차와 제트기 모형	30
3) 모래놀이터, 신체활동공간, 관찰학습공간	33
4) 보안을 위한 시설물 설치	40
5) 편리한 시설	42
2.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	48
1) 미적 측면을 강조한 실외놀이터 기구의 디자인 변형	48
2) 소꿉놀이집	50
3) 조용한 공간과 관찰학습 공간	52
4)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놀이기구와 바닥 설치	57
5) 편리한 시설	61

V. 논의 및 결론	66
1. 논의	66
1)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	66
2)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	69
2.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및 사진 목차

<표 1> 참여학급 하루 일과의 예	18
<표 2> 소그룹 조형활동	20
<사진 1> 천 미끄럼틀	27
<사진 2> 덜컹 미끄럼틀	27
<사진 3> 함께 타는 그네	29
<사진 4> 함께 타는 미끄럼틀	29
<사진 5> 전자동 철봉	30
<사진 6>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32
<사진 7> 신호등 모형	32
<사진 8> 제트기 모형	33
<사진 9> 모래놀이터	35
<사진 10> 비를 막아주는 모래놀이터	35
<사진 11> 축구장	36
<사진 12> 잔디 축구장	36
<사진 13> 넓은 공간	37
<사진 14> 꽃밭 속 꿀 먹는 나비	38
<사진 15> 거북이 키우기	40
<사진 16> 동물원	40
<사진 17> 경비실	42
<사진 18> 시계	43
<사진 19> 전등	44
<사진 20> 축구장 옆 자판기	47

<사진 21> 분리수거 휴지통	48
<사진 22> 소꿉놀이 집	52
<사진 23> 휴식 공간	53
<사진 24> 차 마시는 곳	54
<사진 25> 아기 놀이터	54
<사진 26> 전시벽	55
<사진 27> 스크린	55
<사진 28> 책상과 의자	56
<사진 29> 수족관	57
<사진 30> 물고기가 사는 연못	57
<사진 31> 작은 정글짐	59
<사진 32> 작은 철봉	59
<사진 33> 부드러운 철봉	60
<사진 34> 폭신한 그네	60
<사진 35> 음료수 자판기	62
<사진 36> 약수터	62
<사진 37> 선풍기	62
<사진 38> 시계	63
<사진 39> 우체통	63
<사진 40> 화장실	65
<사진 41> 사물함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고 또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넓은 공간, 햇빛, 바람, 소리 등은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촉감 등을 유아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외놀이는 유아들에게 실내놀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준다 (Frost, 1992).

유아교육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실외놀이와 관련하여 신선한 공기의 경험, 대근육 운동놀이와 자연탐색의 이점을 강조해 왔다(Wellhusen, 2002). 또한 실외놀이는 유아에게 자연관찰과 운동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구성놀이를 통한 인지능력발달, 의사소통 능력의 확대, 사회적 기술 향상, 긴장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독립심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상은, 2007). 따라서 유아가 놀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선택하여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유아에게 실외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사회가 대도시화되면서 유아의 놀이공간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의 유아들의 실외 놀이공간은 들이나 강과 같은 자연 속이었으나 현재 유아들이 쉽게 이용하는 실외놀이 공간은 그들이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이나 집주변의 실외놀이터이다(백정연 · 서연금, 2008).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조차 지가 상승과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좁은 실외놀이터를 마련해 놓거나 혹은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의 실외놀이터 역시 생활편의 시설과 차량 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찾아 볼 수가 없거나, 실외놀

이터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외놀이터 안의 놀이기구나 시설물은 단순하고 다양성이 결여되어 실외놀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백경임, 200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놀이경험을 확장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해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적절히 구성하여 유아에게 우수한 실외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신은수, 2000).

기본적으로 실외놀이터에 있어야 하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로는 활동적인 운동놀이를 위한 시설과, 놀이집과 같은 극놀이 구조물, 복합 놀이 시설, 놀이용 교통수단, 넓은 공간, 작고 개별화된 공간, 물·모래놀이영역, 동·식물 영역, 비구조적인 창고, 화장실, 나무, 수풀 등이 있으며(Frost, 2004)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터를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놀이기구 및 시설물을 한정된 공간에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유아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외놀이터의 위치, 면적, 바닥 표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실내놀이 공간과 마찬가지로 운동놀이영역, 역할놀이영역, 모래놀이영역, 동·식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 등 영역 별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또 모든 공간을 놀이기구로 채워 넣기 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과 휴식 공간, 그리고 실내놀이실과의 전이 영역 및 서로의 왕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이숙재, 2004; Miller, 1989).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은 단단하고 안전해야 하며 미적이고 목재나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유아에게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이숙재, 2004). 또한 단순하며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놀이기구 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의 놀이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종류와 난이도가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제공해야 한다(Frost, 1992; Moore, 1992). 그밖에도 실외놀이터에는 울타리와 창고, 수도시설이나 화장실과 같은 기타시설을 배치해야 한다(신동주, 1999).

국내에서도 실외놀이터에 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서인자(2006)의 연구 결과 실내 놀이공간과 실외 놀이공간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행동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노현주(1993)와 이봉선(1998)은 실외놀이터의 유형이나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내놀이 공간과 실외놀이터가 유아들에게 각기 다른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외놀이터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애선(2000)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유치원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실외놀이터의 시설 및 설비실태는 매우 미흡했으며 안전도가 낮아 실외놀이터의 전반적인 질적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목화 · 변혜령(2006)은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터의 실태와 만족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실외놀이터는 대부분 구조화된 놀이기구 중심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장들은 이러한 실외놀이터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은 유아들에게 여전히 우수하지 못한 실외놀이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이 성인중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외놀이터 시설 이용도 및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김소진, 2006; 이화정, 2000)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외놀이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유아 및 교사 등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아연(1997)은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투사법, 참여설계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알아보았으며, 어린이집 실외놀이공간 설계모형을 도출해 내었다. 이영범(2005)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내가 꿈꾸는 놀이터’ 그림그리기를 실시하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실외놀이터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았으며, 고유진(2007)은

교사에게는 설문지를 유아에게는 그림그리기를 이용하여 실외놀이공간 구성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고 실외놀이터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숙재 · 이봉선(2007)은 2세 영아의 실외놀이 행동을 관찰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참여와 면담을 실시하여 영아용 실외놀이 공간구성에 대한 영아와 교사의 바램을 이해하고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실외놀이터 공간을 구성하기위해 유아들의 요구를 반영시켜 실외놀이터의 모습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런 상황에서 유아의 실제적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그들이 선호하는 요소 및 요구를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터 꾸미기’ 라는 주제로 소그룹 조형활동을 실시하여 만 5세 유아들의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조형활동은 언어표현이 서툰 유아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내면의 욕구 등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선행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림 그리기와는 달리 평면과 공간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소그룹으로 협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외놀이터에 공간 구성에 관한 요구들이 더욱 잘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외놀이터 꾸미기’ 라는 주제로 소그룹 조형활동을 실시하여 참여관찰,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유아들의 요구를 실외놀이터 설계 개발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의 공간구성에 대해 유아들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소집단 조형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는 무엇인가?

2) 소집단 조형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실외놀이터의 중요성

실외놀이터는 유아들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며, 실내보다 시끄럽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른 유아들을 방해하지 않고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실내보다는 지저분한 재료나, 물·모래 등의 비구조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놀이하기에 용이하다(Davies, 1996; Frost, 1997). 또한 실외놀이터는 유아들에게 대근육 운동이나 자발적인 신체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방공간으로 확장시켜 실시할 수 있는 장소이다(노현주, 1995). 이와 같이 놀이공간으로서의 실외놀이터는 실내놀이실에서의 놀이가 확장되어지는 장소일 뿐 아니라 실내놀이실이 지니지 못하는 독특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외 놀이터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다. Hohlwill 과 Heft(1987)는 실외놀이터는 유아에게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며, 실내 환경에 비해 덜 구조적이므로 유아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환경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enniger(1985)는 실내의 좁은 공간과 소음으로 제한받는 유아에게 실외놀이터는 대안적인 학습 환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Sutton-Smith(1990)는 실외놀이터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탐구, 실험, 구성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실외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아의 놀이를 촉진시키는 것이며,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질적으로 우

수한 실외놀이터에서 유아들은 놀이에 몰두할 수 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비, 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느끼고,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을 관찰하거나 사육·재배하면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신동주, 1997). 또한 실외놀이터는 유아가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창의성과 인지발달을 증진시켜주며 유아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해 준다. 따라서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구성놀이 등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그네 미끄럼틀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거나 밀어주는 등 협동놀이를 경험하고 좁은 실내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역할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터는 정적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유아들은 실외에서도 책보기, 그림그리기 등의 정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쉬고 싶거나 활발한 운동놀이 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이숙재, 2004).

이와 같이, 실외놀이터는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실내에서 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실외놀이터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유아들에게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그리고 신체발달 등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외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를 적절한 놀이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외놀이터의 구성

우리나라 실외놀이터는 흙이나 콘크리트로 덮인 땅 위에 철재로 만든 그네

· 미끄럼틀 · 정글짐 · 시소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들을 무계획적으로 늘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외놀이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공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주로 대근육을 사용하는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제한적인 형태의 운동 놀이 경험만을 제공한다(신은수, 2002). 따라서 이러한 실외놀이터는 유아의 발달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터는 유아의 놀이를 촉진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Moore(1992)는 놀이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외 놀이 환경을 창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화정(2000)은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라 놀이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유아들의 놀이를 잘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유아의 실외놀이 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상적인 실외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위치와 면적, 지면, 공간 조직 등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이숙재, 2004).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실외놀이터의 구성요소를 위치 · 면적 · 지면, 공간조직, 놀이기구 및 시설, 기타시설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치 · 면적 · 지면

실외놀이터는 건물 주변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건물의 남쪽 면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하루 종일 햇볕이 골고루 들게 하고, 그늘을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숙재, 2004). 그리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자연적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설계해야 하며 외부와 구분이 명확하여 위

험요소로부터 차단되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Beckwith, 1974). 실외놀이터의 면적은 유아의 연령과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놀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신동주, 1999) Decker 와 Decker(1992)는 유아 1인당 $6.75\sim 18m^2$ 을 권장하고 있다. 바닥의 표면은 단일지면으로 구성하기보다 탈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 유아들이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잔디밭, 모래놀이를 하거나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모래와 흙으로 된 바닥,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시설 주변에는 충격흡수바닥재로 된 바닥 등 다양한 재질의 바닥을 제공해야 한다(Frost, 1992).

2) 공간 조직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조직할 때에는 놀이 영역 구성, 빈 공간, 통로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가 실외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운동놀이영역, 역할놀이영역, 정적놀이영역, 물·모래놀이영역, 목공놀이영역, 동·식물 기르기영역 등 각 놀이 영역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이숙재, 2004). Decker와 Decker(1992)는 실외 놀이는 실내 놀이의 연장이므로 실내의 모든 놀이를 실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놀이 영역을 구성하고, 실외놀이터 공간 중에서 1/3은 모래놀이나 미술활동 등 정적 활동 영역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나머지 2/3는 그네타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동적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외놀이터에는 유아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대그룹으로 활동하거나 게임, 달리기 등 용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되는 전이 지역과 같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유아들의 왕래를 원활하게 해주어

야 한다(신동주, 1999; 이숙재, 2004; Frost, 1992).

3) 놀이기구 및 시설물

실외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놀이시설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가 늘 새롭고 흥미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실외놀이터를 구성하는데 제공되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에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글짐, 모래놀이터, 물놀이시설, 놀이집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현 타이어, 빈 드럼통, 통나무, 밧줄, 그물 등 비구조적인 시설물도 있다. Henniger(1994)는 구조적인 놀이시설만으로는 여러 유형의 실외놀이를 자극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비구조적인 시설물이 실외놀이터를 복합공간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외놀이터에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모든 놀이기구는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해야 한다(이숙재, 2004). 놀이시설의 어떠한 부분에도 유아들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하며 볼트와 너트는 놀이시설 및 기구의 표면위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하고 유아의 몸이 놀이시설물에 있는 구멍이나 틈에 끼어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신동주, 1999). 그네는 복합놀이 시설과 유아들이 많이 몰리는 놀이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실외놀이터에는 운동놀이, 사회극화 놀이를 할 수 있는 구조물 등 유아들이 모든 종류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기구 및 시설물을 제공하여야 한다(Wellhusen, 2002). 그리고 다른 기구들과의 통합적인 관계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Frost, 1992). 규모가 큰 놀이시설물은 대부분 고정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순하며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놀이시설 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놀이기구는 유아들이 최적의 도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아들의 다양한 연령층과 신체조건, 지적 발달 수준, 정서, 사회성 발달 수준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즉, 단순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배치해야 한다(Essa, 1996). 또한 고정된 놀이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교환이나 이동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배치해야 하며 유아의 능력 발달 및 성장에 따라 그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시설의 첨가, 제거, 재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재숙, 2004). 놀이기구를 제작할 때에는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재료를 철재로 획일화하기 보다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아에게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놀이기구와 시설물의 형태와 색채를 미적으로 아름답게 제작하고 실외놀이터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알맞은 놀이기구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놀이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숙재, 2004).

4) 기타 시설물

유아들은 실외놀이터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외놀이터에는 주변의 다른 장소와 실외놀이터를 구분 짓고 놀이터의 기능 및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출입구와 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동이 가능한 놀이기구 및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품 등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며 수도시설을 두어 모래놀이나 물놀이, 동·식물 기르기 등을 할 때 쉽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수 시설 및 화장실 시설을 두어서 유아가 생리적 욕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동주, 1999; 이숙재, 2004; Frost, 1992).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실외놀이터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와 면적, 지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러 놀이 영역별로 공간을 구성해 주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과 유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통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울타리와 창고, 수도시설이나 화장실과 같은 기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외놀이터에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놀이시설과 다양한 놀이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재료도 다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실외놀이 기구와 시설물은 미적이며 예술적 감각을 갖추고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며,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

3. 실외놀이터와 관련된 선행연구

유아들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를 하면서 보내며, 놀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들만의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유아들은 놀이가 행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실외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실외놀이터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외놀이터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외놀이터의 환경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환경 실태뿐만 아니라 실외놀이터에 따른 유아 놀이 형태, 실외놀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 교사와 유아의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건축학 연구와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외놀이터의 공간 구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실외놀이터의 질적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 형태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라 유아들의 놀이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은 유아에게 우수한 실외놀이터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현주(1994)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놀이터를 사용하는 유아들에게서는 기능놀이와 상징놀이, 협동놀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통적 놀이터를 사용하는 유아들에게서는 구성놀이와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이봉선(1998)의 연구에서는 5세 아동의 경우 질적 수준이 낮은 실외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들에게서는 기능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질적수준이 높은 실외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들에게서 구성놀이, 협동놀이가 많이 나타났다. 류진순(2003)은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이 높은 유치원의 유아들이 일반적인 유치원의 유아들에 비하여 실외 상상놀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합적, 협동적 상상놀이 유형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상호협동적인 놀이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실외놀이터의 만족도 및 놀이 기구 선호도

다음의 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외놀이터의 실태와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유아들의 실외놀이기구의 선호도 등이 분석되었다.

박종성(1994)의 연구에서는 주거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기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아동들은 농구대, 그네, 미끄럼틀을 선호한 반면 시소와 철봉은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정(2000)은 실외놀이터에서 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모래놀이터, 열린 공간, 오르기기구, 그네, 미끄럼틀, 복합놀이대, 구름사다리, 동산, 흔들말 철봉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실외놀이터의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로 신동주·양연임(2003)은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독립적인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었으며, 종합놀이기구를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었다. 반면 유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빈 공간, 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전거 및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바닥 처리, 창고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목화와 변혜령(2006)은 대전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로 대전지역의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터 환경실태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외놀이터가 대부분 구조화된 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시설장들은 실외놀이터에 고정된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한 신체놀이 영역이 있으면 실외놀이터의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이화정(2000)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유아들은 모래놀이공간이나 개방된 공간을 선호하는 것을 보아 시설장과 유아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외놀이터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는 그 속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하고 유아들의 욕구와 이해과정을 충분히 알고 그들이 원하는 실외놀이터로 구성해야 한다.

3) 실외놀이터에 관한 사용자 요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건축학이나 조경학 연구와 더불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외놀이터의 공간 구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아연(1997)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 유아들이 그림그리기, 투사법, 참여설계를 하여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의 요구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교사들은 감독과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공간을 영역별로 분화하였고, 안전을 중요하게 설계하였으며 유아들은 장식적인 요소를 좋아하고 놀이시서물간의 이동거리를 짧게 하는 등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영범(2005) 역시 참여디자인을 통한 놀이터를 계획하였다. 참여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 3,4,5학년

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간선호도를 조사하고 ‘내가 꿈꾸는 놀이터’ 그리기를 하여 아동의 요구를 알아보았으며, 교사를 대상으로는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에게는 인터뷰를 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는 활동적인 시설을 선호한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이나 교육관련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교사들은 야외수업이 가능한 환경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외놀이터가 만들어지길 원했으며 안전과 관리의 문제를 중요시 하였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색지대로서의 역할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세 영아의 실외놀이 행동을 관찰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참여를 실시한 이숙재 · 이봉선(2006)의 연구를 통하여 영아들은 감각적 인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래놀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영아들은 모형시설물에서 상상놀이를 하였으며 도전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위해 그네, 이동놀이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순환통로 중심의 디자인, 실내와 실외의 전이 공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였고, 단순함, 개방성, 변형 가능한 놀이시설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유진(2007)은 교사는 설문지로, 유아는 그림을 이용하여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사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놀이 영역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분한 놀이공간과 다양한 소재의 바닥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아는 새로운 형태의 모험적인 놀이기구와 여러 종류의 놀이 영역, 자연적인 요소가 반영된 실외놀이 환경과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기관

본 연구의 참여기관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다.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만 5세반 2학급, 만 4세반 1학급, 종일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감과 주임교사, 각반 담임교사 3명, 종일반 교사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S초등학교는 'ㄷ'자 형태의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병설 유치원은 중앙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무실과 교실 4개가 있다. 교실은 반일제 학급과 오후 연장제 학급이 분리되어 있고 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들은 반일제 수업이 끝난 후 종일반 교실을 이용한다. 그 외 급식실, 실내 유희실, 실외놀이터, 운동장 등의 시설과 각종 기자재 등은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용한다. 병설유치원 유아들이 사용하는 실외놀이터는 운동장과 병설유치원 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다.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수학습방법은 만 4세는 기본생활습관을 만 5세는 제6차 교육과정의 생활중심교육을 바탕으로 놀이활동중심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중심, 자연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기관을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선택한 이유는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최근 신설된 병설유치원에 비하여 오래된 놀이 시설물로 실외놀이터가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놀이 시설들이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 크기에 맞추어져 있어 유아들에게 적절한 실외 놀이터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은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 학급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파란반과 하늘반 두 개의 만 5세 학급이 있으며 만 5세 유아들은 조형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아 만 5세반 두 학급을 모두 연구 참여 학급으로 선정하였다. 파란반은 만 5세 유아 27명(남아 15명, 여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 4세부터 재원한 유아 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임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2년째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늘반은 만 5세 유아 27명(남아 14명, 여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 4세부터 재원한 유아 7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담임교사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째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다. 파란반과 하늘반의 유아들은 대부분이 유치원 인근에 살고 있어 모두 도보등원을 하고 있었다.

(1) 파란반과 하늘반의 하루 일과

본 연구의 참여학급인 파란반과 하늘반의 일과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정규 수업시간으로 진행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중일반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아들은 오전 9시까지 도보로 등원을 하고 교실에 들어온 유아들은 가방과 옷을 자기자리에 정리하고, 자유선택 활동을 하였다. 자유 선택활동은 오전 9시 50분까지 진행되고 정리정돈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10시부터 오전 간식을 먹었다. 간식을

먹은 후에 유아들은 교실 중간의 카페트 위에 모두 앉아 교사와 함께 활동 주제에 대해 10시 30분부터 20분간 이야기 나누기를 하였다. 이야기 나누기가 끝나면 대그룹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하였다. 11시 50분부터는 점심식사 시간이었으며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점심식사 노래 후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면 양치를 하고 산책이나 실외자유놀이를 하였다. 산책은 운동장과 S초등학교 건물사이에 있는 정원을 이용하고 실외자유놀이는 S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실외놀이터, 병설유치원 건물 뒤에 위치한 실외놀이터를 이용하였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교실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실내자유놀이를 하였다. 12시 40분부터는 소그룹활동이나 개별인지활동 등이 이루어지며 1시 30분이 되면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 하루활동 및 일과를 평가하고 귀가 준비를 한 후 귀가를 하였다. 종일반 유아들은 1시 40분부터 종일반 교실로 가서 종일반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 1> 참여 학급 하루 일과의 예

시 간	활 동 내 용
09:00 ~ 09:50	등원, 자유선택활동
09:50 ~ 10:00	정리정돈, 화장실
10:00 ~ 10:30	간 식
10:30 ~ 10:50	이야기나누기
10:50 ~ 11:20	창의 및 인지활동
11:20 ~ 11:50	대그룹활동(단체 및 신체활동)
11:50 ~ 12:40	점심식사, 산책 및 실외자유놀이
12:40 ~ 13:30	소그룹 활동, 개별인지활동 등
13:30 ~ 13:40	평가 및 귀가, 종일반 활동 시작

2. 활동소개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에 연구자가 참여 관찰하여 유아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유아와의 면담과 활동결과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활동소개

(1)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외놀이터 꾸미기’ 라는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였다. 여아와 남아를 구분하고, 무선으로 배정하여 그룹 당 5명씩 여아 5그룹 남아 6그룹이 활동을 실시하였다.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5명의 유아가 한 그룹이 되어 오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중일반 교실에서 40~50분 정도 연구자가 계획한 ‘실외놀이터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활동 자료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들이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와 요구를 조형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조형 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하여 주었다. 활동 진행은 먼저 사전활동으로 연구자가 이야기 나누기 등을 통하여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하였고, 본 활동에서는 유아들끼리 실외놀이터에 표현하고 싶은 것, 사용될 재료,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2절 전지 위에 입체적으로 실외놀이터를 표현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마무리 활동을 통하여 활동을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였다.

다음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그룹 조형 활동 준비사항 및 활동 진행 내용이다.

<표 2> 소그룹 조형 활동

활동명	· 실외놀이터 꾸미기
활동시간	· 40~50분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류 : 2절 전지(545× 788mm), 4절지(420× 524mm), 색상지, 골판지, 색종이, 셀로판지, 신문지 등 · 접착 및 재단 도구 : 딱풀, 스카치테이프, 청테이프, 가위 · 색칠도구 :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파스텔 등 · 가루 및 점토류 : 모래, 찰흙 · 선 표현 자료 및 연결도구 : 털실, 노끈, 빨대, 모루,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수수깡 등 · 부피 표현 자료 : 뽕뽕이, 종이상자, 스티로폼 판, 스티로폼 그릇, 병뚜껑, 달걀케이스 등의 폐품류
활동내용 (사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놀이터 꾸미기’ 활동을 소개한다. T :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놀이터 만들기를 해 볼 거예요. C1 : 놀이터요? T : 그래요, 우리친구들 S초등학교에도 놀이터가 있지요? C2 : 네 있어요! 운동장에도 있고요, 우리 유치원 건물 뒤에도 조그만한 것도 있어요. C3 : 근데 지금 운동장 공사해서,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에서는 놀기 힘들어요 T : 그래요? 운동장 공사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친구들은 운동장에 어떠한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운동장에 어떠한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해보고 우리 친구들이는 갖고 싶은 놀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C2 : 우와 재미있겠다.

활동내용
(본활동)

① 실외놀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T :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C1 : 친구들이랑 무얼 만들 건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T : 그래요. 참 좋은 방법 이예요. 우리 그림 놀이터에 무엇을 만들 건지 이야기 해볼까요?
C2 : 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C1 : 나는 꽃 울타리! 아니 꽃무늬 담벼락!!
T : 왜 울타리가 있으면 좋을까요?
C1 : 왜냐하면 보기에도 예쁘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② 4절지에 실외놀이터 설계도를 그린다.

T : 그런데 놀이터를 만들기 전에 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C1 : 뭔데요?
T : 건물이나 놀이터나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봐라지’ 하고 먼저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린 후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생각하고 그려 본대로 놀이터를 만들 거예요.
C2 :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T :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친구들에게 이 종이를 줄게요. 종이 위에 색연필, 크레파스, 싸인펜을 가지고 설계도를 한번 그려 볼까요?
연구자는 4절지를 바닥에 놓는다.
T : 그럼 우리 이 큰 종이에다가 5명이 함께 의논해서 우리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설계도로 그려볼 거예요.
(중략)
C1 : 선생님! 우리 설계도 다 그렸어요!
T :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든 설계도를 보고 무엇을 그렸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누가 그렸어요? 뭐까? 설명해 주세요.
C2 : 여기는 게임하는 곳 이예요. 사과나 과자 매달아놓고 먼저 따서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③ 2절 전지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실외놀이터를 꾸민다.

연구자는 설계도를 의자에 붙여주고 바닥에 2절지를 깔아준다.
T :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만든 설계도를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 줄게요 (조형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리키며) 설계도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C1 : 여기에 있는 모든 거 다 사용해도 되요?
T : 물론이죠. (2절지를 가리키며)여기가 놀이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친구들이 설계도에서 구상해보았던 놀이터를 만들어보세요! 유아들은 조형물을 만든다.

- 완성된 조형물을 감상하고 어떤 이유로 이러한 조형물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조형활동이 끝나고 아쉬웠던 점 등을 이야기 해본다.
- 정리정돈을 한다.

활동내용
(마무리
활동)

T : 이제 우리 서로 자기가 만든거 이야기 해볼까요?

C1 : 선생님! 저는 미끄럼틀이랑 거북이 만들었어요.

T : 우리 친구는 어떤 미끄럼틀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C1 : 이 미끄럼틀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 이에요. 계단을 두 개 만들고 내려가는 부분도 넓게 만들었어요.

(중략)

T : 우리친구들 오늘 재미있었어요?

C : 네

T : 오늘 놀이터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 있어요?

C1: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설계도를 더 그리고 싶었어요.

C2: 설계도랑 똑같이 못 만들었어요.

(중략)

T : 자 그럼, 주변을 정돈하고 손 씻고 교실로 돌아갑니다.

2) 자료수집

(1) 활동 참여 관찰

① 예비 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예비 활동을 실시하고 참여 관찰 하였다. 2008년 3월 25일(화) ~ 26일(수) 2일 동안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같은 구에 위치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J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만 5세 남아 5명, 여아 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소그룹 조형 활동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가 참여관찰 하여 효율적인 메모 훈

런과 비디오 실험 녹화 등을 실시해 보았다. 예비 활동 관찰을 통하여 본 활동이나 관찰 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② 본 연구

본 활동은 2008년 3월 25일 부터 4월 11일까지 3주 동안 11회 실시하고 관찰 하였다. 한 주에 3~4회 유치원을 방문하여 오전 자유선택 활동시간인 9시부터 9시 50분까지 하루에 1그룹을 대상으로 소그룹 활동을 전개하고 3주 동안 총 11그룹(남아 6그룹, 여아 5그룹)의 활동을 관찰 하였다.

유아들의 소그룹 조형 활동 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 및 행동을 전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노트에 기록하는 방법과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한 후 녹화자료를 보면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관찰내용을 노트에 간단히 기록하였으며, 연구보조자로는 현재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하였다.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녹화는 총 11회의 소그룹활동을 녹화하였으며, 각 회당 50분 정도의 녹화분량으로 소그룹활동 도입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두 녹화하였다. 녹화자료 전사량은 A4용지 모두 88매이다. 비디오 녹화 기록은 조형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조형활동이 시작될 때, 비디오카메라를 궁금해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의식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활동 도중 유아들과 수시로 비형식적인 면담을 하였는데, 주로 유아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 놀이기구 중 선호하는 놀이기구가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활동이 종결 된 후, 왜 그러한 활동물을 만들었는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2) 활동 결과물

총 11그룹의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이 실시되는 동안 유아들이 만든 설계도와 조형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였다. 설계도 11개와 조형활동 결과물 사진 약 100장을 수집하여 만 5세 유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그들이 선호하는 요소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설계도는 원본을 수집하였으며, 조형활동 결과물은 그대로 수집할 수 없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자의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현장 기록은 유아의 행동과 의사소통의 정확한 묘사를 위하여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두 명이 관찰 기록을 하였고, 비디오 녹화 전사는 연구자 혼자 하였으나 녹화 자료를 여러 차례 재확인 하여 해석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전사를 할 때에는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행동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자와 이야기를 자주 나눔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완성된 전사본을 읽어가면서 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제어를 여백에 적었다. 또한 전사본을 여러 차례 읽어보며 재분석을 하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전사본 여백에 적은 후 해당 단락을 찾아서 정리했다. 여백에 적어 놓은 주제를 노트에 정리하고 서로 공통되는 것을 모으고 분류하여 유목화 하였으며 유목화한 항목을 다시 재해석 하였다. 활동 결과물인 설계도와 조형물을 찍은 사진들도 전사본의 주제와 함께 정리하고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에 제시한 유아의 이름은 무기명으로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S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을 요구하였는지 남아의 반응과 영아의 반응을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조형활동 시 나타나는 유아들의 상호작용과 활동결과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활동 결과물은 설계도와 조형물 두 가지 형태이며 유아들이 만든 설계도와 조형물은 부록에 그룹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따라 만 5세 남아와 여아의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

소그룹 조형활동을 관찰 결과, S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만 5세 남아들은 우리 주변의 실외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 놀이기구를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였고, 선호하는 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놀이시설이나 공간이 실외놀이터에 구성되길 요구하였으며, 보안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실외놀이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 그룹의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요구를 활동 사례와 활동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단순 놀이기구의 변형

본 연구에서 말하는 단순 놀이기구는 실외놀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놀이기구들 중 미끄럼틀, 그네 등과 같이 현재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놀이기구를 말한다. 만 5세 남아들의 조형활동을 살펴보면, 남아들은 먼저 현재 실외놀이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순 놀이기구들을 생각해 내고,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들을 설계도에 그리거나 조형물로 만들었으며, 만드는 도중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놀이기구를 변형하였다. 남아들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거나, 여러 유아가 한 가지 놀이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하는 등 일상적인 것과는 또 다른 기능을 갖도록 형태를 변형하였다.

다음의 두 사례에 제시한 것과 같이 남아들은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미끄럼틀과는 다른 형태로 더욱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미끄럼틀을 만들었다.

정인수 : 난 천으로 된 미끄럼틀을 만들 거야!

최은석 : 천?

정인수 : 응, 천으로 만들어진 미끄럼틀이 재미있을 것 같아, 딱딱하지도 않고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관찰 2008. 3. 26)

양동규 : 재혁아, 나랑 같이 미끄럼틀 만들자!

유재혁 : 내가 계단을 만들 테니깐 너가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양동규 : 아니야, 내가 계단을 만들게,

유재혁 : 그럼 그렇게 하자,

양동규 : 나는 올라갈 때 덜컹덜컹 거리는 계단을 만들 거야! (동규는 요쿠르트 통을 테이프로 이어준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재미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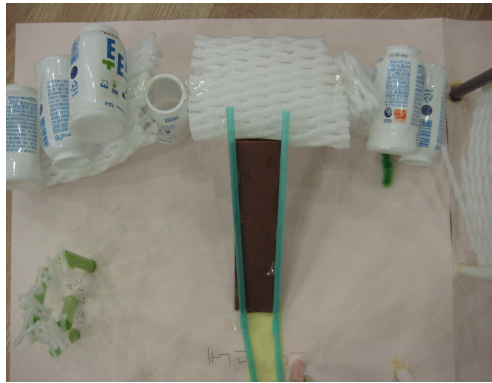
(관찰 2008. 3. 28)

인수는 미끄럼틀의 내려오는 부분이 딱딱한 알루미늄판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지길 바랐으며, 동규는 미끄럼틀의 계단을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계단을 오를 때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변형시켰다. 이와 같이 남아들은 놀이기구가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재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만들어지길 원했으며 이러한 놀이기구를 통하여 놀이가 좀 더 재미있어지길 기대하였다.

<사진 1> 천 미끄럼틀



<사진 2> 덜컹 미끄럼틀



만 5세 남아들은 놀이기구를 재미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명의 유아가 한 가지 놀이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놀이기구나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요구하였다.

오진수 : 이제 나는 커다란 그네를 만들어야겠다! (종이컵을 이리저리 살펴 보더니) 커다랗게 만들려면 접시랑 종이컵을 붙여서 만들어야 겠어.

(중략)

연구자 : 진수가 만든 그네는 굉장히 크구나!

오진수 : 네! 이 그네는 커다란 그네예요!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네 탈 때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이 그네는 많이 크고 옆에 그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관찰 2008. 4. 2)

위의 사례에서 진수는 커다란 그네를 만들었다. 한 명이 타는 일반적인 그네를 깊고 넓게 변형시켜 여러 명의 유아가 한 개의 그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진수는 실외놀이터에서 인기 있는 그네를 타려면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데, 깊고 넓은 그네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와 비슷한 예로 여러 유아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틀을 변형한 것이다.

연구자 : 성명아! 어떤 미끄럼틀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황성명 : 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 이에요, 이 철쭉으로 만든 부분은 계단인데요, 계단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저기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요, 친구랑 들어서 따로 따로 올라와서 손잡고 같이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부분이 넓어서 친구랑 같이 탈 수 있어요.

(유아면담 2008.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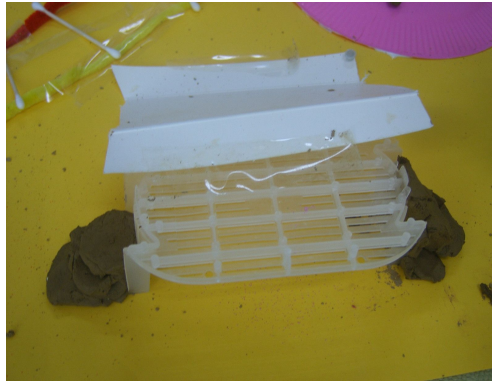
면담을 통해서 위의 유아는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큰 미끄럼틀을 만들

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명이는 미끄럼틀의 내려오는 부분을 넓게 만들었고 또 계단도 일부러 두 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두 명의 유아가 동시에 미끄럼틀에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미끄럼틀을 자기 의도대로 변형시킨 것이다.

<사진 3> 함께 타는 그네



<사진 4> 함께 타는 미끄럼틀



다음 사례는 철봉을 변형시킨 예이다.

김상현 : 너 지금 철봉 만든 거야?

한희재 : 응! 근데 이건 전자등 철봉이야! 여길 누르면 철봉이 길어져서 아빠도 사용해도 돼, 우리 아빠는 철봉을 잘 하거든, 작게 만들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

(관찰 2008. 3. 26)

위의 사례에서 희재는 종이컵과 수수깡을 이쑤시개로 이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철봉을 만들었다. 이 철봉은 자동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유아든 아빠와 같이 키가 큰 사람이든 한 개의 기구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진 5> 전자동 철봉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 남아들은 놀이기구의 변형을 통해서 일반적인 놀이기구 보다 좀 더 유별난 재미를 추구하거나 또는 여러 명의 유아가 같은 놀이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기능적 다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2) 장난감 자동차와 제트기 모형

본 연구에 참여한 남아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가상놀이나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역할놀이를 좋아하였다. 실제로 남아들은 설계도에 자동차와 만화 속 주인공들을 많이 그렸으며 그러한 가상놀이들을 실외놀이터에서 자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남아들은 직접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 제트기모형과 같은 놀이기구가 실외놀이터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진수 : 나는 놀이터에서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뭘로 만들지? 종이접시로 만들까?

장수열 : (우유곽을 들고)이것 보라! 여기에 딸기우유 껍데기도 있다.

오진수 : 엇! 그거 나주라.

장수열 : 왜?

오진수 : 자동차 만들게 좀 줘 봐. 놀이터에서 탈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만들자! 자동차로 경주 게임도 하고, 택시 놀이도 하면 좋지?

장수열 : 음..... 내가 찾은 건데..... 그래, 이걸 너 줄게.

(관찰 2008. 4. 2)

임성빈 : 나는 놀이터에 자동차랑 신호등을 만들거야!

윤병희 : 놀이터에 자동차가 있다고?

임성빈 : 응, 장난감 자동차! 신호등도 있어야해!

연구자 : 성빈아! 신호등이 놀이터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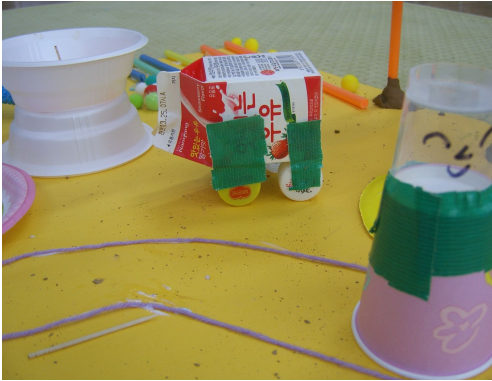
임성빈 : 내가 저번에 다니던 유치원에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도 타고 운전놀이도 하고 재미있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신호등이 있으면 운전놀이를 할 수 있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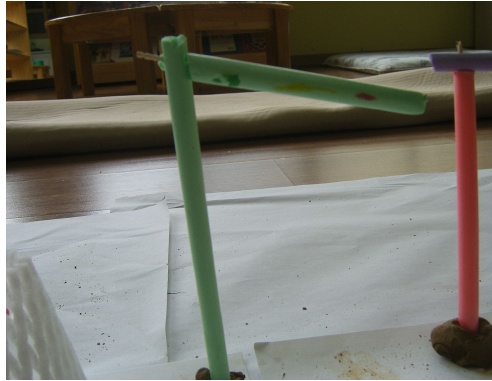
(관찰 2008. 3. 26)

위의 두 사례는 조형활동에서 남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가상놀이를 할 때 필요한 장난감 자동차와 신호등 모형을 만드는 모습이다. 진수는 놀이터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이용하여 택시놀이나 자동차 경주 놀이를 하고 싶어 하였으며, 성빈이 역시 실외놀이터에서 운전놀이를 했었던 경험을 떠올려 장난감 자동차와 신호등을 조형물로 만들었다.

<사진 6>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사진 7> 신호등 모형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자동차놀이 이외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는 가상놀이를 즐겨 한다고 하였다.

한희재 : 은석아! 뭐 만든 거야?

최은석 : 제트기 시소야!

한희재 : 제트기?

최은석 : 응! 제트기 모양으로 시소를 만들었어! 여기에선 시소를 타고, 여기 제트기 부분에선 벡터맨(로봇영화 제목)놀이도 할 수 있어! 이글(주인공)이 타는 제트기 닮았지? 벡터맨 놀이 할 때 재미있잖아!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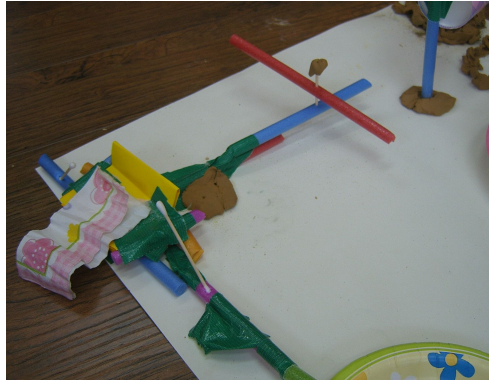
연구자 : 은석이는 제트기모양의 놀이기구가 놀이터에 있으면 좋겠어요?

최은석 : 네! 이글이 타는 제트기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관찰 2008. 3. 26)

위의 사례를 보면 은석이는 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어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이러한 놀이를 더욱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제트기 모형의 놀이기구가 실외놀이터에 구성되길 원하였다.

<사진 8> 체트기 모형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 남아들은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가상놀이를 촉진하는 놀이기구들을 설계도에 그려주거나 조형물로 만들었으며, 주로 자동차 노리를 하거나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가상놀이를 할 때 필요한 놀이기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3) 모래놀이터, 신체활동공간, 관찰학습공간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본 연구 대상 남아들은 모래놀이터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 또한 남아들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구장과,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넓은 공간을 만들었으며, 식물이나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관찰학습 공간도 만들었다.

다음은 남아가 설계도에 모래놀이터를 그리고 있는 사례이다.

영호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자신을 설계도에 그린다.

연구자 : 모래놀이터를 그렸네, 영호는 실외놀이터에 모래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장영호 : 네! 모래 놀이터에서 놀면 엄청 재미있어요! 두꺼비집도 만들 수 있

고요, 터널도 만들 수 있어요, 난 모래 모래놀이터가 제일 좋아요,
정태원 : 맞아 모래놀이터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전부 다 만들 수 있
어, 그래서 시간이 금방 금방 가,

(관찰 2008. 4. 10)

위의 사례에서 영호는 집짓기와, 터널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래놀이터를 설계도에 그렸으며, 태원이 역시 모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모래놀이터의 장점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들은 모래놀이터가 실외놀이터에 제공되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도근 : 선생님! 저는요, 모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도근이는 자신이 그린 모래놀이터 속에 양동이와 삽도 그려준다,

연구자 : 이걸 양동이랑 삽이네,

김도근 : 네, 삽으로 모래를 파요! 양동이는 물을 가져올 때 필요해요! 물이 나오는 곳도 그려야겠다,

연구자 : 모래놀이터 옆에 세면대를 그려네,

김도근 : 네! 교실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물 뜨러 가기가 너무 멀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모래놀이터에 물이 있으면 더 좋아요?

강민성 : 네, 당연하죠! 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물 흐르는 길도 만들 수 있어요,

김도근 : 또 , 모래놀이를 하고 나면 손이 더러워지니깐 손 씻기도 좋아요,

(관찰 2008. 3. 28)

도근이는 설계도에 모래놀이터에 양동이와 삽, 그리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세면대를 그렸다. 남아들은 삽과 양동이가 모래놀이를 할 때 놀이를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모래놀이터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아들은 모

래놀이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세면대를 원하였는데, 세면대는 모래놀이터 근처에 설치되어 화장실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는 모래놀이터에 물이 공급되면 모래로 만드는 창작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어 놀이를 지속시켜주며, 수로 만들기과 같이 물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래놀이터는 남아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 공간이었다. 남아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모래놀이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였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래놀이터에 비를 막아주는 보호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설계도를 그리기 전 이야기나누기 과정이다. 수열이는 모래놀이터를 덮을 수 있는 커다란 우산을 만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모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수열 : 선생님! 진짜 큰 우산을 만들어서 모래 놀이터에 세워두면 비가 오는 날에도 비 안 맞고 놀 수 있어요, 전 비 맞지 않는 모래놀이터를 만들어 줄래요,

(관찰 2008. 4. 2)

<사진 9> 모래놀이터



<사진 10> 비를 막아주는 모래 놀이터



남아들은 모래놀이터 이외에도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구장과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넓은 공간을 요구하였다.

함건우 : 나 축구 잘하는데!

김정빈 : 나도 축구 잘한다!

함건우 : 아! 그럼 우리 축구장도 그리자!! 잔디 축구장, 내가 여기에 그려볼게.

김정빈 : 축구장이랑, 골대도 그려!

함건우 : 우리 운동장에 잔디축구장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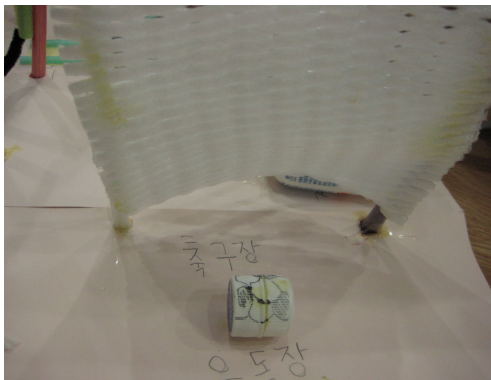
연구자 : 건우는 축구장이 가장 좋구나.

함건우 : 네, 형아들이랑 축구시합하면 재미있어요!

(관찰 2008. 4. 4)

위의 사례에서 건우는 또래들과 축구시합을 하기 위한 장소로 축구장을 설계도에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었다. 축구는 남아들에게 관심 받는 신체활동이었으며 남아들은 축구를 하기위하여 축구장과 골대, 축구공이 실외놀이터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진 11> 축구장



<사진 12> 잔디 축구장



황성명 : 얼음 땡 하는 곳도 만들고 싶은데...

윤병희 : 그건 만들 필요 없지, 그냥 놀이터 안에서 아무데서 하면 되잖아,

황성명 : 그래도, 넓은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 아무데서나 하다가 그네에 부딪힐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필요해!

(중략)

성명이는 여러 개의 클립을 연결하여 한쪽 공간에 동그랗게 놓는다.

연구자 : 그건 뭐예요?

황성명 : 여기에서 얼음땡하고 놀거나 게임 하면 돼요,

(관찰 2008. 4. 11)

위의 사례와 같이 남아들은 신체활동 공간으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아들은 이곳이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얼음땡과 같은 놀이를 나무나 놀이기구 등에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사진 13> 넓은 공간



남아들은 식물 재배나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관찰 학습의 공간이 실외놀이터에 구성되길 바라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들은 남아들이 관찰학습공간으로 꽃밭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연구자 : 채형이 친구는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이채형 : 저는 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진수 : 저도요!

연구자 : 어 그래요? 놀이터에 꽃밭이 있으면 왜 좋을까요?

이채형 : 꽃 기르면 좋잖아요! 물도 줄 수 있고요.

오진수 : 음... 꽃밭에 나비가 날아오면 나비가 꿀 먹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유아면담 2008. 4. 2)

위의 사례에서 채형이는 실외놀이터에 꽃밭을 만들어 꽃을 기르면 나비까지 관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 식물을 가꾸면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곤충을 학습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14> 꽃밭과 꿀 먹는 나비



남아들은 관찰학습공간으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공간도 요구하였다. 다음은 조형활동에서 동물들을 만드는 사례로 교실에서 키우는 거북이를 실외놀이터에서도 키우고 싶어 하는 유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으며 사자와 같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실외놀이터에서도 볼 수 있길 원했다.

연구자 : 성명이가 만든 건 뭐예요?

황성명 : 거북이를 만들었어요, 우리 반에 거북이 있는데... 그거 놀이터에서 키우려고요, 교실에만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윤병희 : 그럼 토끼도 키우자!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시키게! 하하,

황성명 : 거북이랑 토끼랑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길까?

(관찰, 2008. 4. 11)

최민욱 : 여기 사자랑 호랑이 동물원 만들 거야!

민욱이는 사자를 만든다,

(중략)

정인수 : 근데 놀이터에 사자가 있어도 돼? 사자가 우리 물면 어떡해?

최민욱 :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울타리 밖에서만 보면 되지!

정인수 : 놀이터에 사자랑 호랑이가 있으면,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매일 매일 구경할 수 있겠다. 그치?

최민욱 : 원숭이도 만들까? 난 원숭이 만져보고 싶어!

(관찰 2008. 3. 26)

성명이는 실내에만 있는 거북이가 불쌍하기 때문에 실외놀이터에서 기르자고 제안하였다. 병희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토끼와 거북이를 키워 경주시켜 보고 싶어 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들은 실내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실외 놀이터에서 키우고 싶어 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식들을 실험해보기 위해 동물을 기르자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민욱이는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동물원을 만들었다. 사자와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동물원까지 가야하는데, 실외놀이터에 동물원이 있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동물들을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진 15> 거북이 키우기



<사진 16> 동물원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공간까지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였는데, 본 연구대상 남아들은 모래놀이터와 신체적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축구장과 넓은공간, 관찰과 학습의 공간으로 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보안을 위한 시설물 설치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만든 실외놀이터 설계도와 조형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설물이 설치된 안전한 실외놀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두 사례에서는 실외놀이터의 보안을 위한 시설물로 경비실과 카메라가 설치되길 바라는 남아들의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장수열 : (원주가 만든 것을 보고) 이걸 뭘데? 뭐 만든 건데?

고원주 : 여긴 경비실이야.

장수열 : 경비실?

고원주 : 응! 경비실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놀 수 있잖아!

장수열 : 그럼 안에 들어 있는 수수깡은 뭐야??

고원주 : 이거? 이걸 몽둥이! 나쁜 사람 왔을 때 이걸로 콧 때려주려고!

(관찰 2008. 4. 2)

한희재 : 카메라를 그려야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돼! 상현아 너도 그려!

연구자 : 놀이터에 카메라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궁금한데 알려 줄 수
있어요?

김상현 : 물론이죠! 카메라는 우리가 노는 거 막 찍어주니까요!

한희재 : 그리고 유괴범들이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와서 잡아가려고 해도
이걸로 찍으면 경찰아저씨가 보고 얼른 달려오잖아요!

연구자 : 우와! 엄청 좋다! 그려네, 아주 멋진 생각이네요, 그치?

한희재 : 그런데 나쁜 사람이 카메라를 콧 부서 버리면 어떡해?

김상현 : 에이~ 그럼 탐지기가 있으면 되지,

상현이는 공중을 떠다니는 탐지기를 그린다,

김상현 : 보세요! 선생님 이걸 탐지기예요,

연구자 : 탐지기?

김상현 : 네! 탐지기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탐지기예요, 이렇게 뽕뽕 떠다
녀요, 나쁜 사람 몰래 움직여서 도둑이 부술 수 없어요,

(유아면담 2008. 3. 26)

원주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경비실을 만들었다. 실외놀이터에 경비실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쉽게 놀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희재와 상현이 역시 설계도 활동 시 카메라와 무인탐지기를 실외놀이터에 그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실외놀이터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들은 최근에 일어난 유아 납치사건에 관심이 많았으며, 유괴범이나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원하였다.

<사진 17> 경비실



5) 편리한 시설

유아들이 만든 실외놀이터 설계도와 조형물의 특징 중 하나는 편리한 시설이 실외놀이터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편리한 시설은 시계, 공중전화 등 놀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필요로 하거나 놀이를 도와주는 시설을 말한다. 남아들이 요구하는 편리시설에는 시계, 전등, 공중전화, 약국, 음료수자판기, 선풍기, 쓰레기통 등이 있었다.

다음 사례는 실외 놀이터에 필요한 편리한 시설로 시계를 설계도에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을 그릴지 골똘히 생각하는 성명에게 병희가 말을 건다.

윤병희 : 뭐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시계 그려라!

황성명 : 시계는 왜?

윤병희 : 시간을 봐야하니깐, 놀이터에서 놀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

황성명 : 그래, 시계 그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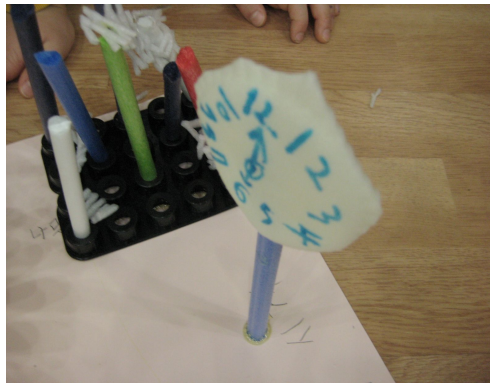
성명이는 사람을 그리고 사람 손목에 손목시계를 그려준다,

윤병희 : 아이고! 손목시계 그리면 어떡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시계를 그려야지! 비켜봐, 내가 그릴게, (시계를 그린 후에) 그냥 이렇게 커다란 시계를 그리면 되지,

(관찰 2008. 4. 11)

병희는 실외놀이터에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명이가 손목시계를 그리자 병희는 손목시계를 사용해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탑 모양의 시계를 그렸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외 놀이터에 시계가 설치되면 편리하다고 하였다.

<사진 18> 시계



연구자 : (접시 위에 수수깡이 고정되어 있는 작품을 보며)

음.. 이걸 누가 만든거예요?

최은석 :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전등이에요 전등! 축구장처럼 밝은 전등

이에요!

연구자 : 은석이가 만든 것이 전등이었구나! 그런데 은석이는 왜 전등을 만들었어요?

최은석 : 그거야,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전등이 필요 없지만 밤에 놀이터에서 놀 때에는 전등이 필요하잖아요! 깜깜하니깐

연구자 : 그래요, 은석이가 만들어준 전등은 밤에 놀 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겠네.

(유아면담 2008. 3. 26)

위의 사례에서 은석이는 밤에도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전등을 만들었다. 남아들은 종종 밤늦게 까지 실외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시설인 전등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요구하였다.

<그림 19> 전등



연구자 : 상현이는 뭐 그리는 거예요? 집 그리는 거예요?

최은석 : 이거 집 아닌데.....

연구자 : 집 아니예요? 그럼 뭘까?

최은석 : 이걸 전화기예요,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요! 그리고, 119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치면 119에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연구자 : 음..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119를 부르기 위해 놀이터에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은석 : 네! 전화기가 필요해요, 나는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유아면담 2008. 3. 26)

위의 사례에서 상현이는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실외놀이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현이는 유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위급상황 시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실외놀이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설계도에 그려진 편리 시설로 약국에 관한 사례이다.

양동규 : 재혁아! 너 지금 그리는 거 뭐야?

유재혁 : 응? 이거 약국이야! 하늘 약국!

양동규 : 약국을 왜 그려? 놀이터에!

유재혁 : 다쳤을 때 약 사러 가려고, 아플 때 멀리 있는 약국 가지 가려면 힘들잖아!

양동규 : 다치면 병원에 가야지!

유재혁 : 아니야, 조금 다쳤을 때에는 약국 가면 돼! 나 저번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 할머니랑 약국 가서 금방 치료했어!

(관찰 2008. 3. 28)

재혁이는 실외놀이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도에 약국을 그렸다. 실외놀이터에서 상처를 입거나 아플 경우 멀리 있는 병원이나 약국까

지 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외놀이터에 약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실외놀이터는 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을 비치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음료자판기에 관한 사례이다.

함건우 :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축구장에서 축구하면 목이 마르니깐
판대기를 만들자!

건우는 음료수 자판기를 만든다,

(중략)

건우는 축구장을 완성하고 바닥에 고정을 한 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함건우 : 내가 아까 만든 자판기 어디다 뒀지?

자신의 등 뒤편에 있는 자판기를 발견하고 축구장 옆에 둔다,

함건우 : 자판기를 (축구장 옆)여기에 두어야 해, 목이 마를 때 빨리 마셔야
하니깐,

(관찰 2008. 4. 4)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신체활동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된다고 하였다. 건우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고 난 후의 목마름이나 더위를 빨리 해소하도록 음료자판기를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에 배치하였다.

<사진 20> 축구장 옆 자판기



또한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휴지통이나 청소기와 같은 편리시설을 설계도에 그리거나 조형물로 만들었다. 다음 사례는 휴지통을 조형물로 만드는 상황이다.

정태원 : 쓰레기통을 만들자, 놀이터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지!

태원이는 여러 가지 색의 종이컵을 차례대로 바닥에 붙인다.

장영호 : 쓰레기통이 너무 많은데?

정태원 : 분리수거를 해야지! 이러면 놀이터가 깨끗해지겠다, 그치?

(관찰 2008. 4. 10)

유아들은 분리수거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태원이는 여러 색의 종이컵을 차례로 붙여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진 21> 분리수거 휴지통



2.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

S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만 5세 여아들의 소그룹 조형활동을 살펴보면, 여아들은 실외놀이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놀이기구들을 외형상 미적측면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하거나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요구하였다. 또한 휴식공간과 같은 조용한 공간과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관찰학습 공간을 요구하였으며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실외놀이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여아 그룹의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요구를 활동사례와 활동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적 측면을 강조한 실외놀이기구의 디자인 변형

남아들과 달리 여아들은 놀이기구의 외형에 관심이 많았다. 여아들은 실외놀이터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놀이기구들을 미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여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였다. 다음 사례는 두 여아가 설계

도에 구름 모양이나 무지개 모양으로 미끄럼틀을 그리는 상황이다.

홍수경 : 근데, 혜진아! 너 뭐 그려?

김혜진 : 난 미끄럼틀 그리고 있어,

홍수경 : 미끄럼틀? 우와 좋은데? 나도 구름 미끄럼틀 그려야겠다, 그냥 미끄럼틀 보다 구름 미끄럼틀이 더 예쁘고 더 좋잖아!

(중략)

김혜진 : 그럼 난 무지개 미끄럼틀 또 그려야겠다, 더 예쁜 무지개 미끄럼틀! 혜진이는 자신이 그린 미끄럼틀 그림 옆에 무지개 모양의 미끄럼틀을 하나 더 그린다,

(관찰, 2008. 3. 27)

수경이는 혜진이가 그린 미끄럼틀을 보고 구름 모양의 미끄럼틀을 그렸다. 수경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모양의 미끄럼틀 보다 구름 모양으로 디자인한 미끄럼틀이 보기에 더 예쁘다고 하였다. 혜진이 역시 수경이가 그린 구름 미끄럼틀이 자신이 그린 미끄럼틀 보다 더 예뻐 보였는지, 다시 여러 가지 색으로 무지개 모양의 미끄럼틀을 그렸다.

이 외에도 여아들이 만든 조형물이나 설계도를 살펴보면, 위의 사례에서 처럼 놀이기구들의 색깔이나 모양을 다양하게 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들과는 다르게 외관상으로 미적인 놀이기구를 만들었다.

연구자 : 혜진이는 왜 미끄럼틀을 무지개 모양으로 그려줬어요?

김혜진 : 예쁘잖아요! 그리고 수경이 구름미끄럼틀 보다 더 예뻐요,

연구자 : 그럼 예쁜 미끄럼틀이 놀이터에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김혜진 : 음.... 놀이터가 예뻐지고 알록달록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유아면담 2008. 3. 27)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서 예쁜 놀이기구가 실외놀이터에 설치되면 좋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유아는 무지개와 같이 여러 색깔이 많이 들어간 미끄럼틀이 놀이터를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주며, 여러 가지 모양과 색으로 이루어진 예쁜 놀이터가 유아의 기분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여아들은 실외놀이터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놀이기구들을 외형상 미적 측면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2) 소꿉놀이집

여아들도 남아들과 마찬가지로 가상놀이를 촉진하는 놀이기구들을 설계도에 그려주거나 조형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아들은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상놀이를 도와주는 소꿉놀이집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여아들이 소꿉놀이를 도와주는 놀이집을 표현해 주는 사례들이다.

연구자 : 혜진이는 놀이터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김혜진 : 음.... 소꿉놀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 소꿉놀이집?

김혜진 : 네, 교실에 있는 소꿉놀이집처럼 놀이터에도 놀이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연 : 맞아요. 혜진이랑 저랑 다정이는 유치원에서 매일 매일 소꿉놀이해요!

연구자 : 그럼 주연이도 놀이터에 소꿉놀이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박주연 : 네, 놀이터에 소꿉놀이집이 있으면 우리 언니랑도 소꿉놀이 할 수 있잖아요!

(유아면담 2008. 3. 27)

연구자 : 수민이가 설계도에 그린 것은 뭐예요?

박수민 : 저는 놀이집이랑 미끄럼틀을 그렸어요,

연구자 : 왜 놀이집이랑 미끄럼틀을 그렸어요?

박수민 : 우리 유치원 놀이터에는 놀이집이 없어요, 놀이집이 있으면 소꿉놀이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는 놀이집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소꿉놀이를 할 수 있어요,

(유아면담 2008, 4, 1)

김세영 : 이걸! 소꿉놀이 집이야!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도 소꿉놀이집이 있어, 다영이랑 거기서 엄마아빠 놀이했었어, 그치? 다영아,

엄다영 : 응, 우리 아파트 소꿉놀이집은 사다리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김세영 : 지붕을 만들어서 덮자!

연구자 : 세영아! 놀이터에 소꿉놀이 집이 있으면 왜 좋을까요?

김세영 : 음..... 재미있게 놀 수 있잖아요, 엄마아빠놀이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아무튼 좋아요!

(관찰 2008, 4, 8)

위의 사례에서 수민이와 혜진이는 소꿉놀이를 하기 위해 교실에 있는 소꿉놀이집이 실외놀이터에도 설치되길 원하였다. 세영이도 조형활동시 소꿉놀이집을 만들었으며, 다영이와 함께 소꿉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많은 여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즐겨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가상놀이를 하기 위해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 소꿉놀이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꿉놀이집은 가상놀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진 22> 소꿉놀이 집



3) 조용한 공간과 관찰학습 공간

남아들과는 달리 여아들은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조용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실외놀이터를 구성하였다. 여아들이 원하는 조용한 공간에는 휴식공간,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공간 등이 있었다.

연구자 : 이걸 뭐예요? 분수대 옆에 있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다정 : 여긴 분수대 옆에 있는 쉬는 곳 이예요, 놀다가 힘들면 여기 앉아서
쉴 수 있어요, 분수대도 볼 수 있고요,

(유아면담 2008. 3. 27)

위의 면담을 통하여 실외놀이터에 휴식공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다보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휴식공간과 비슷한 장소로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들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은 조용한 공간이기도 하였지만 여아들이 실외놀이터에 갈 때, 함께하는 엄마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조아람 : 이걸! 커다란 탁자야,

연구자 : 탁자 그랬어요?

조아람 : 네, 커다란 탁자에서는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연구자 : 차?

조아람 : 네!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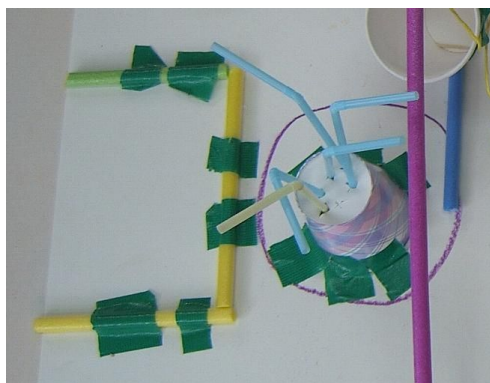
연구자 : 음... 그렇구나, 그런데 놀이터에 차 마시는 곳이 있으면 좋은점이
뭐예요?

조아람 : 다영이랑 나랑 놀이터 갈 때, 다영이 엄마랑 우리 엄마랑 따라 오거
든요, 우리가 놀 때, 엄마들은 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깐 여기 앉아서
서 차 마셔도 되고 우리 노는 거 지켜봐도 되고,

(유아면담 2008. 4. 8)

위의 사례를 보면 여아들이 실외놀이터를 갈 때 가끔 엄마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들은 여러 엄마들이 실외놀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으며, 차 마시는 공간은 엄마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남을 배려하는 특성이 있는 여아들은 엄마를 위한 차 마시는 공간뿐만 아니라 교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아기놀이터와 같이 타인을 위한 공간까지도 만들었다.

<사진 23> 휴식 공간



<사진 24> 차 마시는 곳



<사진 25> 아기 놀이터



조아람 : 그건 뭐야?

엄다영 : 이걸 전시하는 벽이야! 여기에 내가 그린 그림을 붙여 놓을 수 있어.

조아람 : 그림 전시벽을 차 마시는 곳 옆에 놓아두자!

엄다영 : 그래, 차 마시면서 우리들이 만든 그림도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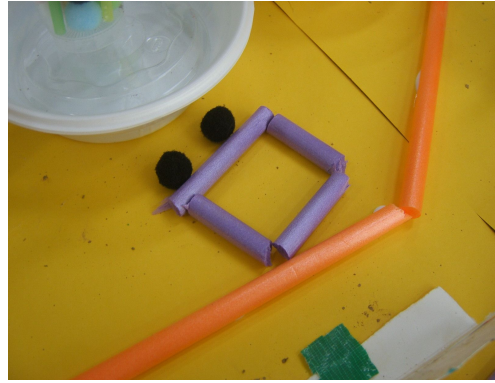
(관찰 2008. 4. 8)

여아들은 조형활동 시 차 마시는 공간 주변에 전시벽을 만들었다. 전시벽은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벽으로 차 마시는 공간 옆에 배치하여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설 수 있는 공간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휴식 공간 근처에 스크린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여아들도 있었다. 이처럼 여아들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근처에 분수대나 전시벽과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였다.

<사진 26> 전시벽



<사진 27> 스크린



최지민 : 주원아 책상이야 그거?

박주원 : 응! 놀이터에 책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최지민 : 왜?

박주원 : 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잖아.

(관찰 2008. 4. 1)

연구자 : 이곳은 뭐하는 곳이에요?

정다정 : 여기에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여기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연구자 :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구나.

정다정 : 네, 놀이터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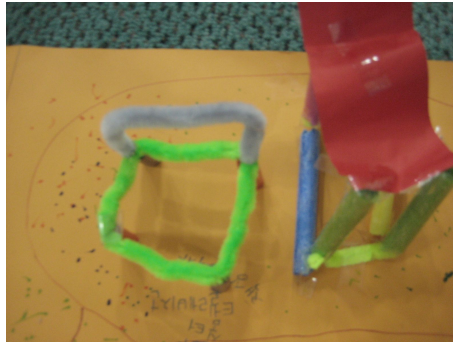
정다정 : 음... 바람도 불고, 크게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유아면담 2008. 3. 27)

남아들이 축구와 게임과 같은 활동적인 놀이에 관심이 있다면 여아들은 활동적인 놀이 외에 정적인 놀이에도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조형활동 시 그림

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 여아들은 날씨가 좋을 때 실외놀이터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였으며 실내에서 보다 크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사진 28> 책상과 의자



또한 여아들은 남아들과 마찬가지로 동·식물을 기를 수 있는 관찰 학습의 공간이 실외놀이터에 구성되길 원하였다. 많은 여아들이 꽃밭과 연못을 설계도에 그리거나 조형물로 만들었다.

정정원 : 놀이터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심수현 : 고추 키우는 곳을 만들까?

정정원 : 고추?

심수현 : 응,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옥상에서 엄마랑 나랑 고추 키우는데, 너무 좁아! 놀이터에서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정정원 : 나는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상추 키워봤는데,.. 그거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랑 먹었어!

(관찰 2008. 4. 3)

박주원 : 연못을 만들었어?

최지민 : 응, 우리 교실에 있는 물고기 연못에서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

박주원 : 우와! 좋은 생각인데? 물고기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최지민 :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헤엄칠 수 있어, 물고기밥도 연못에서 주면 돼,

(관찰 2008. 4. 1)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수현이와 정원이는 실외놀이터에서 고추나 상추와 같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길 원했고, 지민이는 물고기를 위해 교실에 있는 물고기를 실외의 넓은 연못에서 키우고 싶어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외놀이터에 넓은 연못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진 29> 수족관



<사진 30> 물고기가 사는 연못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 여아들은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실외놀이터에 휴식공간이나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조용한 공간과 동·식물 기를 수 있는 관찰학습 공간이 구성되기를 요구하였다.

4)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놀이기구와 바닥재 설치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아들은 놀이기구를 사용하

는 유아들의 신체크기에 맞도록 제작하거나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김민지 : 선영아! 나 정글짐 만들었어.

이선영 : 너무 작은 정글짐 같아!

김민지 : 응, 이걸 작은 정글짐이야! 우리 운동장에 있는 정글짐은 너무 커서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쳐!

(관찰 2008. 3. 25)

한이슬 : 철봉도 만들까? 예지야 철봉 내가 만들어도 돼?

김예지 : 응? 철봉? 나 자전거 다 만들고 만들려구 했는데, 그냥 너가 만들어!

이슬이는 수수깡으로 철봉을 만든 후 이쑤시개로 크기가 작은 철봉을 만든다.

한이슬 : 큰 건 내가 하는 철봉이고 작은 건 아기 철봉이야, 내 동생도 할 수 있게, 이쑤시개로 작게 만들었어.

연구자 : 동생 철봉은 작게 만들었어요?

한이슬 : 네! 내 동생은 키가 작으니깐, 큰 철봉에서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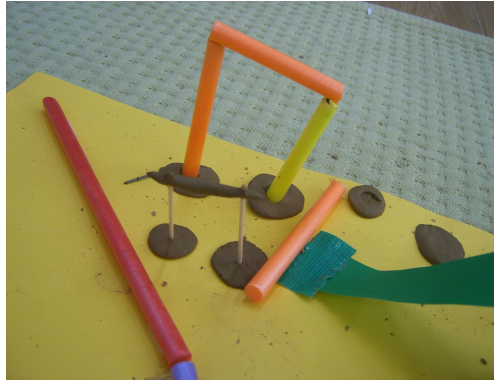
(관찰 2008. 4. 3)

민지는 현재 운동장에 있는 정글짐이 자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유아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작은 정글짐을 만들었으며, 이슬이는 키가 작은 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철봉을 만들었다. 이처럼 여아들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크기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진 31> 작은 정글짐



<사진 32> 작은 철봉



여아들은 신체 크기에 맞도록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것 외에도 놀이기구를 사용하거나 부딪쳤을 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놀이기구를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 : 선영이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줄까요?

이선영 : 저는 철봉을 만들었어요, 제일 작은 거, 중간크기, 제일 큰 거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철봉은 오래 사용해도 아프지 않아요! 예전에 철봉 하다가 손바닥을 다쳤었는데 이 철봉은 부드럽고 철봉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유아면담 2008. 3. 25)

연구자 : (클립을 연결하는 수경이를 보며) 수경아! 뭐 만드는 거야?

홍수경 : 그네에서 잡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 만들면 여기 솜에다가 연결 할 거예요.

연구자 : 솜?

홍수경 : 네! 솜이요, 솜으로 연결해주면 그네가 푹신푹신태요!

연구자 : 왜 푹신푹신태게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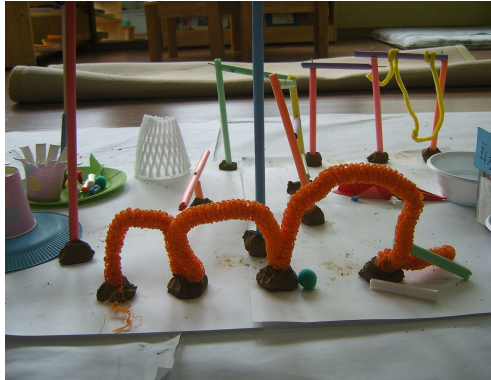
홍수경 : 그러면 그네에 부딪쳐도 아프지 않으니깐요! 우리 오빠는요, 그네에

머리를 부딪쳐서 다친 적이 있어요,

(유아면담 2008. 3. 25)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상처를 입었던 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선영이는 딱딱한 철봉을 사용하다 손바닥의 피부가 벗겨진 적이 있었으며, 수경이는 오빠가 그네를 이용하다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친 경험이 있는 여아들은 놀이기구를 사용하거나 부딪쳤을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놀이기구가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어지길 요구하였다.

<사진 33> 부드러운 철봉



<사진 34> 폭신한 그네



다음은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상처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놀이터의 바닥재로 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김소영 : (수아가 그리는 그림을 보며) 뭐야 그거?

최수아 : 이건 잔디야!

연구자 : 수아는 왜 잔디를 놀이터에 그려줬어요?

최수아 : 우리 운동장 놀이터에는 잔디가 없어요! 근데 잔디가 있으면 넘어져도 잘 안 다치거든요, 우리 아빠랑 대공원에 놀러갔는데 아빠랑

잔디 위에서 달리기하다가 넘어졌는데 나 안 다쳤어요!

(유아면담 2008. 3. 25)

위의 사례에서 수아는 설계도를 그릴 때 놀이터의 바닥 표면을 잔디로 표현하였다. 수아는 놀이터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었는데, 잔디가 깔린 바닥에서는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여아들이 그린 설계도를 보면 실외놀이터에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모래나 폭신한 매트리스 등이 놀이터의 바닥재로 사용되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편리한 시설

여아들도 남아들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시설들이 실외놀이터에 구성되길 요구하였다. 여아들이 표현해준 편리한 시설은 시계, 음료수자판기, 선풍기, 우체통, 화장실, 사물함 등이 있었다.

여아들도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음료자판기, 약수터와 같은 음수시설을 만들었다. 비슷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조형물로 공놀이 공간이나 수영장과 같이 신체적 놀이를 하는 공간 주위에 커다란 선풍기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였다.

연구자 : 수민이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박수민 : 자판기요! 목마를 때 여기서 음료수 뽑아 마시면 되요!

연구자 : 그래? 좋은생각이네

색종이에 자판기 모양을 그린 후에 네모 상자를 가져와 붙여준다,

(유아면담 2008. 4. 1)

예지는 정원이가 만든 분수대를 보며 비슷한 것을 만들어 준다.

김예지 : 여기는 물 마시는 곳이야, 약수터! 놀다가 목마르면 물마실수 있어,

예지는 자신이 만든 것을 분수대 옆에 놓아둔다.

(관찰 2008. 4. 3)

<사진 35> 음료수 자판기



<사진 36> 약수터(오른쪽)



<사진 37> 선풍기



다음은 실외 놀이터에 필요한 편리한 시설로 우체통에 관한 예이다.

박주원 : 지민아! 우리 시계 만들어서 붙이자!

최지민 : 난 우체통 만들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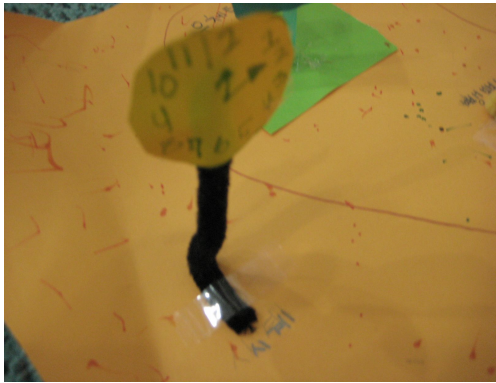
연구자 : 우체통은 왜 만들어요?

최지민 : 유치원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편지 쓰고 싶을 때 편지를 써서 여
기에 넣으면 되요! 그러면 편지를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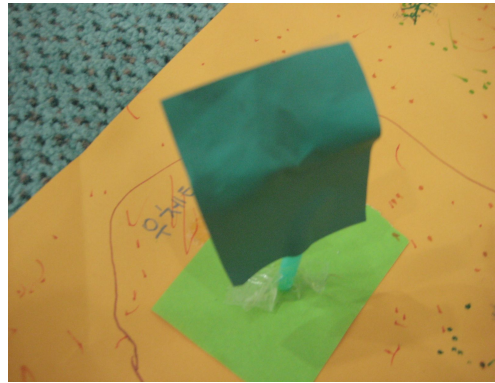
(유아면담 2008. 4. 1)

지민이는 실외놀이터에 유치원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
용할 수 있는 우체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편지를 자주 쓴다고 하였으며, 전달하는 매개체로 우체통
이 사용되길 원하였다. 실외놀이터에 있는 우체통은 편지를 이용하여 유아들
끼리 활발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사진 38> 시계



<사진 39> 우체통



다음 두 사례를 통하여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의 편리한 시설로 물품을 보
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현진 : 수경아 이거 문처럼 열 수 있게 잘라 줘,

홍수경 : 근데 이거 뭐야?

김현진 : 상자야, 물건 담을 수 있는 거!

홍수경 : 사물함 같은 거?

김현진 : 응!

(중략)

연구자 : 현진이 친구는 왜 사물함을 만들었어요?

김현진 : 자꾸 놀이터에서 놀면 장난감이랑 열쇠 같은 거 잃어버려요. 여기다 농구 놀다가 집에 갈 때 가져 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도 주웠을 때 여기 넣어 두면 돼요, 그럼 잃어버렸을 때 여기로 찾으러 오면 되니까! 좋은 생각이죠?

연구자 : 정말 좋은 생각이네!

(유아면담 2008.3. 27)

현진이는 실외놀이터에서 놀잇감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만들었다. 사물함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고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 : (화장실을 가리키며) 이건 뭐예요?

박지원 : 화장실이에요.

연구자 : 우와~ 화장실? 화장실을 왜 그랬어요?

박지원 :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연구자 : 놀이터에 화장실이 있으면 왜 좋을까?

박지원 : 음.. 쉬하고 싶을 때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쉬하고 싶으면 교실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야 하거든요, 너무 멀어서 막 뛰어 가야 해요.

(유아면담 2008. 3. 25)

지원이는 화장실을 만들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놀이터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외놀이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사례를 통하여 실외놀이터 가까

이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어 유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40> 화장실



<사진 41> 사물함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한 만 5세 유아의 요구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조형활동 시 나타나는 유아들의 상호작용과 활동결과물을 토대로 남녀 유아들의 반응을 나누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남아의 요구

만 5세 남아들은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시설물들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여 실외놀이터 공간을 구성하였다. 만 5세 남아들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단순 놀이 기구를 변형하거나 자동차 놀이와 허구적 역할 놀이를 할 때 필요한 가상놀이기구를 요구하였으며, 실외놀이터에 모래놀이, 신체활동, 관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요구하였다. 또한 보안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실외놀이터를 요구하였다.

이를 살펴본 결과로 첫째, 남아들은 일반적인 놀이기구와는 다르게 재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변형시키거나 여러 유아가 한 가지 놀이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놀이기구를 만들었으며 또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변형시켰다. 이는 남아들이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놀이기구가 다양한 재료나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기능적으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목화·최병숙(2003)의 연구에서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놀이 기구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새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고유진(2007)의 연구에서 유아가 같은 성격의 놀이 기구라도 형상을 달리하여 스릴감과 도전감, 모험심을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를 표현하였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남아들은 실제로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 놀이기구를 통하여 놀이가 좀 더 재미있어지길 기대하거나 놀이기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기능적 측면에 관심이 많았다.

둘째, 만 5세 남아들은 가상놀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 제트기 모형을 만들었다. 가상놀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 김온기(1984)는 남아가 하는 가상놀이를 살펴보면, 자동차·교통놀이, 로봇·우주놀이 등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최상순(1987)은 사물을 통한 가상놀이나 괴물, 로봇, 슈퍼맨과 같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역할놀이 등을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자동차놀이나 TV프로그램 주인공이 되어보는 가상놀이를 즐겨한다고 하여, 자동차모형이나 제트기모형과 같은 놀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셋째, 남아들은 모래놀이터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축구장이나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모래놀이터를 가장 많이 만들어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모래가 집짓기와 터널 만들기 등 유아들이 원하는 모든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모래놀이는 남아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였으며 따라서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 모래놀이터가 구성되길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아들은 모래놀이터 근처에 삽이나 양동이, 세면대와 비를 막아주는 보호장비까지 만들었는

데 이는 모래놀이 시 여러 도구들과 물이 공급되면 수로 만들기 등으로 놀이가 발전될 수 있고, 창작물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어 놀이를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며 남아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모래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비를 막아주는 보호장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정(2000)의 연구에서도 모래는 형태가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래놀이터는 유아에게 인기 있는 시설물이고, 물과 함께 제공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소품들과 함께 제공하면 구성놀이와 상징놀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인나영과 유안진(1998)역시 모래놀이터에 물을 공급하였을 때, 기능놀이가 감소하고 구성놀이와 상상놀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모래가 비구조적이고 성형과 조작이 쉬운 특성이 있어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남아들은 모래놀이터 이외에도 축구장이나 얼음 땡과 같은 놀이나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넓은 공간 등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는 남아들이 요구하는 놀이터 시설은 야구나 축구를 할 수 있는 구기장이나 넓은 공간을 요구하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김영자, 1982).

또한 남아들은 실외놀이터에 식물 재배나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관찰학습공간이 구성되길 원하였다. 이는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 구성될 요소로 꽃과 나무, 곤충, 연못, 동물 영역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는 고유진(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 꽃밭이 있으면 나비와 같은 곤충들을 관찰 할 수 있고, 식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기르면 동·식물을 관찰하고 자라나는 과정 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식물재배영역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생태적인 특색을 이해하게 해주며, 다른 유아들과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신동주, 1999). Frost(1992)는 동물을 키우는 것이 유아에게 생명체를 돌보고 책

임지는 태도를 갖게 한다고 하였으며 생명체와 상호작용하여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기회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남아들은 경비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과 같은 보안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계도에 그리거나 조형물로 만들었다. 이는 최근 실외 놀이터에서 유아납치사건과 같은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남아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놀이터에 보안시설물이 설치되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정언·서연금(2008)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유아들이 실외놀이터를 이용할 때, 노숙자나 불량청소년 등 다른 사람들로 인해 놀이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실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며 실외놀이터에 보안시설물이 설치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섯째,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은 편리한 시설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요구하였다. 남아들이 조형활동에서 표현하였던 편리한 시설에는 시계, 전등, 공중전화, 약국, 음료수자판기, 선풍기, 휴지통 등이 있었다. 이는 고유진(2007)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음수대, 화장실, 비상구, 밝은 조명 등을 요구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었으며, 심운숙(1994)은 실외놀이터에 전기, 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이들 시설을 갖추기 용이한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아들은 놀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를 설치하거나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등을 만드는 등 놀이를 할 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리한 시설이 설치되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여아의 요구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여아들의 요구를 살펴

보면, 남아들의 요구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들은 미적 측면이 강조되도록 놀이기구의 디자인을 변형시켰고, 소꿉놀이를 할 때 필요한 가상놀이기구를 요구하였으며, 실외놀이터에 조용한 공간과 관찰학습공간이 마련되길 요구하였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편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실외놀이터를 요구하였다.

첫째, 남아들과 달리 여아들은 실외놀이기구의 변형에 있어, 놀이기구 외형의 색깔이나 모양을 다양하게 하여 놀이기구를 미적으로 아름답게 변형시켰다. 여아들은 외형상 미적인 놀이기구가 실외놀이터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였으며 아름다운 놀이터는 기분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여아들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실외놀이터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미적으로 디자인된 놀이기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아들은 가상놀이를 도와주는 시설물에서도 남아들과는 달리 소꿉놀이를 할 때 필요한 놀이집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기 요구하였다. 이것은 여아는 실외놀이터에서 소꿉놀이와 극화놀이를 많이 하며(김온기, 1984), 가족역할과 관련된 가상놀이를 많이 한다고 보고한 최상순(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여아들은 가상놀이와 관련된 놀이로 실외놀이터에서 주로 소꿉놀이를 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소꿉놀이집이 실외놀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놀이기구와 시설에 대해서 남아와 여아의 요구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남아는 실제로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 놀이기구를 통하여 놀이가 좀 더 재미있어지길 기대하거나 놀이기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하는 기능적 측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아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놀이터 안에서 기분이 좋아지길 기대하여 놀이기구가 어떻게 보이느냐하는 미적측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실외놀이터에서 남아들과 여아들이 즐겨하는 가상놀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아들과 달리 여아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 보다는 조용한 공간을 더욱 많이 요구하였다. 여아들이 만든 조용한 공간으로는 휴식공간, 차를 마시는 공간,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있었다. 이것은 여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다보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실외놀이터를 이용할 때 함께하는 엄마들을 위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용한 공간의 지루함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휴식공간 근처에는 전시벽, 분수대, 대형 스크린 등과 같이 감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배치하였다.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정적인 활동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여아들은 남아들이 실외놀이터에 모래놀이나 운동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길 바라는 것과는 달리 실외놀이터에 휴식공간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구성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영범(2005)의 연구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활동적인 시설을 선호한 반면 여아의 경우 휴게시설이나 교육관련 놀이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소그룹 조형활동에서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였는데, 실외놀이터에서 남아들과 여아들이 선호하는 놀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외놀이터 속의 요구하는 공간도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 관련된 유아들의 요구 중 동·식물을 기르고 관찰 할 수 있는 관찰학습 공간은 남아들뿐만 아니라 여아들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즉,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 휴식공간, 그림을 그리는 공간 등 자신이 선호하는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요구하였으며, 남아와 여아 모두 식물재배와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관찰학습공간도 마련되길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여아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놀이기구를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여아들은 작은 크기의 정글짐이나 철봉을 만들거나 좌석부분이 폭신한 그네를 만들었다. 이것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놀이기구가 자신들의 신체크기에 맞도록 작게 제작되고 놀이기구를 사용하거나 부딪혔을 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놀이기구가 부드러운 재료로 제작되길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0)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기구에서의 유아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추락이나 그네와 같은 움직이는 놀이기구와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원인으로서는 유아의 신체지수나 이용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합한 시설 규격이나 시설물간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아들은 실외놀이터에서 정글짐을 이용하다 떨어지거나 주변사람이 그네에 충돌하여 다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제작하여 실외놀이터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윤강호, 2006).

남아들이 요구한 것들과 비교해보면 안전한 실외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남아와 여아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남아들은 보안 시설물을 요구하였고 여아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놀이기구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아들은 최근에 일어난 유아 납치사건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아들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여아들도 남아들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시설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요구하였다. 여아들이 요구한 편리한 시설에는 음료수자판기, 약수터, 선풍기, 시계, 우체통, 화장실, 사물함 등이 있었다. 유아들은 물건을 보관하는 사물함이나 놀이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화장실을 놀이장소와 가까이 설치하는 등 놀이를 할 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리한 시설이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길 요구하였다. 신동주(1999)는 유아들을 위한 실외놀이터에는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이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숙재(2004)는 실외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정돈하거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실외놀이터의 제작자나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유아에게 적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외놀이터의 공간을 성인의 입장에서 구성하기 보다는 이와 같은 유아의 요구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통해서 만 5세 남아들은 한 가지 놀이기구를 여러 유아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놀이기구나 일상적인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보다 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형태가 변형되길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놀이나 TV만화 주인공이 되는 역할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에 자동차 모형이나 제트기 모형과 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축구장과 같이 신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모래놀이터, 관찰학습공간이 구성되길 요구하였다. 만 5세 남아들은 최근에 일어난 유아납치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에 경비실이나 카메라, 탐지기와 같은 보안 시설물이 설치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시계와 전등, 공중전화, 약국, 음료수자판기 등과 같이 놀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필요로 하거나 놀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편리한 시설들도 실외놀이터에 설치되기를 요구하였다.

둘째, 만 5세 여아들은 남아들과는 달리 놀이기구가 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길 요구하였고, 가상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소꿉놀이를 할 때 필요한 놀이집을 요구하였다. 여아들은 신체적인 활동 보다는 휴식공간이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같은 조용한 공간이 실외놀이터에 더욱 많이 구성되길 원하였고 식물 재배나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관찰학습공간도 구성되길 요구하였다. 또한 여아들은 보안 시설물뿐만 아니라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놀이기구가 자신들의 신체크기에 맞도록 제작되거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료로 제작되길 요구하였으며 실외놀이터의 바닥재는 잔디가 사용되길 원했다. 여아들이 요구한 편리한 시설에는 음료수자판기, 선풍기, 우체통, 화장실, 사물함 등이 있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유아들은 놀이기구에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실외놀이터에서 즐겨하는 놀이가 다르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가 요구하는 놀이기구나 공간 등이 대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모든 유아들이 실외놀이터에서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에 다양한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들에게 보안시설물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설치된 안전한 실외놀이터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실외놀이터의 위험요소들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 5세 유아들은 실외놀이터에 다양한 놀이기구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와 학습의 공간이 구성되길 요구하였으며, 실외놀이터가 안전하고 편리하길 요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외놀이터를 설계할 때에는 실제로 실외놀이터를 이용하는 유아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에게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실시하고, 조형활동에서 유아들이 보여주는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활동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관한 만 5세 유아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몇 가지 측면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유치원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연구대상을 만 5세 유아로 한정지어 실외놀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연령의 유아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시설의 유아들과 다양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아들에게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을 실시할 때, 유아들이 아이디어와 요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하지만 몇몇 유아들은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에 대한 자신의 요구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그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재료 자체에 흥미를 느껴 조형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실외놀이터 공간을 구성하게 하거나 조형활동 후 자신이 만든 조형물에 대해 심층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실시하여 유아들의 요구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하루에 1그룹을 대상으로 소그룹 조형활동을 전개하여 11그룹의 조형활동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한 유치원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형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그룹 조형활동에 참여했었던 유아들과 아직 조형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이 ‘실외놀이터 꾸미기’ 소그룹 조형활동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여러 유치원을 선정하여 소그룹 조형 활동을 실시하거나 같은 유치원일 경우 여러 연구자를 투입하여 동일한 시간에 소그룹 조형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각 그룹에게 ‘실외놀이터 꾸미기’ 조형활동을 1회만 실시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의 특성이나 유아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의 대안으로 조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유아들의 실제 실외놀이활동 참여 관찰을 함께 실시하거나 설계도

그리기 와 조형활동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터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여러 번 실시하여 장기간 동안 유아들의 요구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유진(2007). 사용자 요구 분석에 의한 보육시설 실외놀이 환경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진(2006).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실외놀이시설 이용도 및 놀이행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연(1997). 어린이집 실외놀이공간 설계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1). 유아협동 활동의 현장 적용. 서울: 양서원.
- 김영자(1982).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온기(1984). 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 등(2004). 유아교사를 위한 실외놀이 Guide Book. 서울: 정민사.
- 나옥인(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실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주(1993). 실외놀이터 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순(2003).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성(1994).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 도시문제, 29(305), 32-45.
- 백경임(2003). 연상작용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터 설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정연, 서연금(2008).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특성 및 부모의 요구 분석. 영유아교육논집, 6, 75-99.

- 서인자(2006). 실내와 실외놀이터에서의 유아의 놀이행동.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주영(1997). 아동의 놀이장소와 놀이시설 이용 실태 및 실외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병훈(2003). 유아교육시설 실외 놀이환경의 질적수준과 아동의 놀이행태 분석. 진주산업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소애선(2000). 유치원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주(1999). 실외놀이환경구성 디자인 지침, 교육과학사.
- 신동주, 양연임(2003). 유치원의 실외놀이시설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실외놀이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 7(1), 93-112.
- 신은수(2000).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놀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1), 27-42.
- 심운숙(1994). 유아교육기관의 실외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강호(2006). 한국 어린이 놀이터 위험 실태조사와 국제 안전규정 시스템을 통한 비교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지역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선(1998).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은(2007).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서울: 창지사.
- 이숙재, 이봉선(2007). 어린이집 실외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영아와 교사의 바람. 한국유아교육학회, 27(2), 77-98.
- 이영범(2005). 사용자참여 디자인을 통한 연린 놀이터 만들기. 한국교육시

- 설학회지. 12, 22-32.
- 이화정(2000). 실외놀이시설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와 놀이시설별 유아의 놀이형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나영 · 유안진(1998). 물 공급의 유무에 따른 7세 아동의 모래놀이 내용과 형태. 생활과학연구. 23. 49-60.
- 조미영(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외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 실태 및 관리. 영유아교육논집, 6, 101-129.
- 최목화, 변혜령(2006). 서울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 환경 구성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09-225.
- 최목화, 최병숙(2003). 사용자 참여디자인에 의한 'A'유치원 놀이터 계획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주거학회, 15(4), 87-97.
- 최미란(2005). 유치원 실외놀이 시설 실태 및 안전에 대한 인식.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순(1987). 유아의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 Beckwith. J.(1974). *Build your own playgroun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Davies, M(1996). Outdoors: An important context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 45-56.
- Decker, C.A & Decker, J. R.(1992). *Plann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Frost, J. (1992). *Play and Placescapes*. Albany, New york : Delmar.
- Frost, J.(1997). *Creating play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amsung Welfare Foundation.
- Frost, J. L., Brown, P., Sutterby, J. A., & Thornton, C.D.(2004) *The*

developmental benefits of playgrounds. MD : ACEI.

- Henninger, M. L. (1985). Preschool children's play behaviors in a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In J. L. Frost & S. Sunderlin(Eds.) *When children play*(145-150). Wheaton, MD: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Henniger, M. L.(1994). Planning for outdoor play experience. *Childhood Education, 70*(2), 87-90.
- Miller, K.(1989). *The outside play and learning book :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Naryland : Gryphon House.
- Moore, R. C., Goltsman, S.M., & Iacofano, D.S.(1992). *Play for all guidelines.* Barkeley: MIG Press.
- Wellhousen, K(2002). *Outdoor play every day : Innovative Play Concepts for Early Childhood.* Albany, NY : Delmar.
- Sutton-Smith, B.(1990). The School Playground as a Festival. *Children's Environment Quarterly, 7,* 87-93.
- Wohlwill, J. & Heft, A.(1987).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In D. Stokols & I. Altman(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281- 328). New York: Plenum.

ABSTRACT

An Analysis on the Needs of five-year-old Children's Outdoor Playgrounds Space Arrangement

Kim, So-Yo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know what five-year-old male and female children want in 'Arranging outdoor playgrounds' by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The following questions arose to solve the aims of this study.

1. What do five-year-old male children want in 'the outdoor playground space arrangement' by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2. What do five-year-old female children want in 'the outdoor playground space arrangement' by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This study made the participating observations of two classes consisting of five-year-old children(male 29, female 25) who played 'Arranging outdoor playgrounds' by the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They all attend the kindergarten attached to S elementary school located at Nam-gu, Ulsan City. The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were held eleven times for three weeks (from March 25 in 2008 to April 11) and eleven groups (five female groups and six male groups)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Each group consisted of 5 members selected at random. Children's mutual activities were observed and the informal interviews with children were made, which were put down on the field notebooks or recorded by videoplayer and the activity results such as design drafts and products were photographed and collected as the material for this study.

Field notebooks, video material, interviews with children and activity results were sorted out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ubjects.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ough 'Arranging outdoor playgrounds' by small group designing activities, five-year-old children want to place the large-scale play-devices for some children to play with simultaneously or they want to change the ordinary play-tools into other transformations to feel more exciting. Male children want to use model cars and model jet planes in the outdoor playgrounds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al role plays where they can be the characters of the animated cartoons in TV, and they hope to have space for body activities such as soccer grounds, sand places and

learning spaces for observation. Five-year-old male children are interested in the kidnapping accident happened lately and want to set the security facilities such as guard room, camera and monitor in the outdoor playgrounds to protect themselves from dangers. They also want to have the convenient facilities arranged in the outdoor playgrounds for example, clocks, lanterns, telephone booths, drugstores and beverage vending machines. These are not utilized directly to the children's plays but they are of good use or helpful indirectly while children are pla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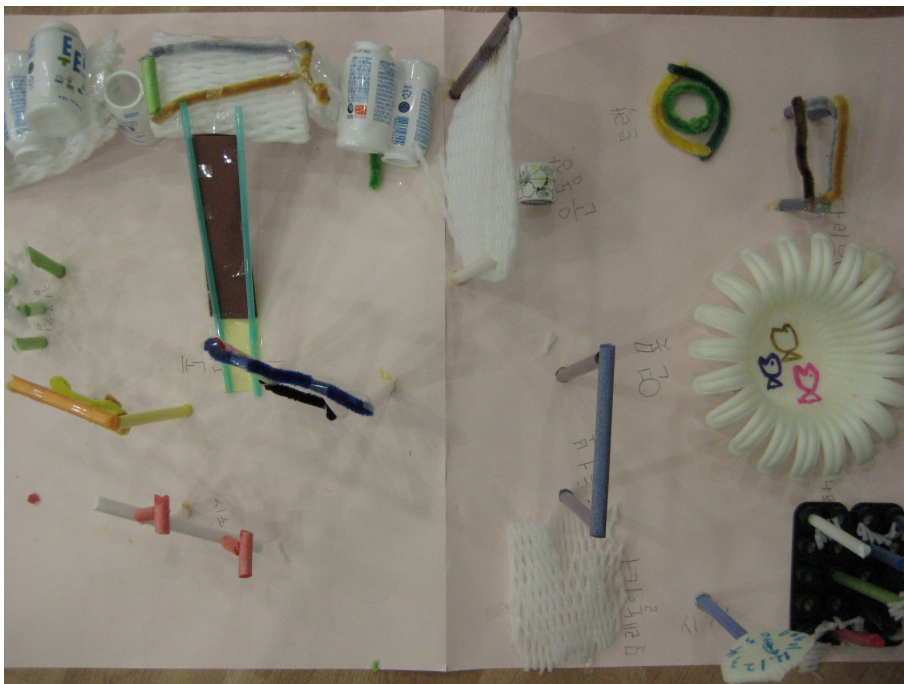
Second, unlike male children, five-year-old female children want to make their play-tools designed aesthetically, and need the toy-kitchenware-playhouse to promote the imaginary play. Female children hope to arrange the relaxing place or calm space more in the outdoor playgrounds for reading and drawing pictures rather than the space for body activities and they also want to have the learning space for observation where plants and animals can be grown. Female children want the play-tools suitable to their body sizes for safety, they also want the play-devices with soft material to absorb the shocks and the floor of the outdoor playgrounds with lawn. The convenient facilities that the female children want to equip are beverage vending machines, fans, post boxes, toilets and lockers.

<부록> 그룹별 활동 결과물

1. 남그룹 1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 (2008. 3. 26)



2. 남그룹 2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3. 28)



3. 남그룹 3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2)



4. 남그룹 4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4)



5. 남그룹 5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10)



6. 남그룹 6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11)



7. 여그룹 1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3. 25)



8. 여그룹 2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3. 27)



9. 여그룹 3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1)



11. 여그룹 5의 설계도와 조형활동물(2008. 4. 8)

